

국 문 초 록

본 논문의 목적은 스페인어의 부정과 양화사구의 작용역 해석 관계를 최소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다양한 스페인어 예문을 현대 통사 이론을 기초로 대조 분석함으로써 부정과 양화사구의 해석에 대해 보다 일반화된 접근과 기술을 시도한다.

논지 전개는 다음과 같다. 서론에서는 문제 제기와 더불어 연구 목적 및 연구 대상의 범위를 설정하고 연구 방법을 제시한다. 2장에서는 양화사 구문에 대해 살펴본다. 우선 일반적인 양화사의 개념 및 종류를 소개한 후, 스페인어 양화사 구문은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 정리한다. 3장에서는 문장 부정과 함께 나타나는 양화사구의 작용역 해석을 다양한 생성문법 이론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우선 생성문법 이론이 갖는 특징을 살펴본 후, 각각의 이론이 스페인어 문장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분석한다. 4장에서는 양화사구의 작용역 해석을 설명하기 위하여 새로운 제안을 하며,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을 통해 논지를 강화한다. 끝으로 결론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최소주의 프로그램 연구 및 스페인어 교육에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 전망하며 논문을 마무리한다.

스페인어의 경우 부정과 양화사구가 한 문장에 함께 쓰일 때, 양화사의 종류에 따라 문장의 해석이 달라진다.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본문에서 스페인어 양화사 구문의 특징에 대해 살펴본 후, 문장 부정과 함께 나타나는 양화사구의 해석을 생성문법 이론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본 논문이 분석틀로 삼는 생성문법 이론은 크게 지배결속 이론과 최소주의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다. May(1977, 1985)의 양화사 인상(Quantifier Raising)은 지배결속 이론적 접근에 해당하며, Fox(1998)의 작용역 경제성(Scope Economy) 이론과 Hornstein(1999)의 격 점검(Case-checking) 이론은 최소주의적 접근에 해당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론들이 스페인어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살펴보고, 각각의 이론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분석 결과 스페인어의 양화사구가 문장 부정과 함께 쓰일 때의 작용역 해석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이

론은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양화사구의 세분화를 제안한 Beghelli & Stowell(1997)의 의견을 받아들여 스페인어 존재 양화사의 해석 문제를 검토하고, Beck(1996)의 NIB(Negation-Induced Barrier)와 MNSC(Minimal Negative Structure Constraint)를 통해 보편 목적어 양화사와 후치 보편 주어의 해석을 분석하며, 영어의 보편 양화사 'every'와 스페인어 전치 주어 보편 양화사 'todo'의 부분 부정 해석은 Lasnik(1999)의 주장을 수정하여 제안한 인접성 원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어 양화사구의 작용역 해석과의 비교를 통하여 스페인어의 어순과 한국어의 조사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교육학적 측면에서 스페인어 학습 시 나타나는 한국어의 간접 현상을 분석하고, 한국어와 스페인어의 양화사는 어휘적으로 일대일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스페인어 학습 시 이러한 간접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점도 살펴보도록 한다.

양화사구는 LF에서 비외현적(covert)으로 이동하여 다양한 작용역 해석을 갖게 되며, 이러한 부정과 양화사구의 의미 자질 해석은 Chomsky(1999)의 일치(Agree) 작용을 통한 자질 점검에 대한 하나의 반례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최소주의 프로그램의 틀 안에서 비해석 형식 자질 점검과는 별개로, 의미 해석을 위한 LF 표시 층위에서의 별도의 통사적 운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끝으로 부족한 논문을 심사해주신 김은경 교수님과 심상완 교수님, 학문의 길로 이끌어주시고 세심하게 논문을 지도해 주신 이만기 교수님, 서어서문학과 교수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주요어 : 스페인어, 부정, 양화사, 작용역, 생성문법, 최소주의 프로그램
학 번 : 2010-22950